

어린이, 청소년 〈낙하산 키즈〉

벤티 C. 탕 글 · 그림 | 심연희 옮김 | 보물창고 펴냄

- ★〈전미도서상〉 후보작
- ★〈아시아/태평양계 아메리칸 문학상〉 수상작
- ★〈뉴욕공립도서관〉 올해 최고의 책
- ★〈커커스 리뷰〉 올해의 책
- ★〈혼 북〉 팡파르 선정도서
- ★〈에반스톤공립도서관〉 올해의 훌륭한 어린이책
- ★〈시카고공립도서관〉 올해 최고의 책
- ★〈스쿨 라이브러리 저널〉 올해 최고의 책



- “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〈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〉이 떠오르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책.” -〈혼 북〉
- “세 남매의 경험은 어딘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. 이 이야기는 미국 유학의 한 측면을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그린다.” -〈커커스 리뷰〉
- “매 장면마다 감정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이 작품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것이다!” -〈북리스트〉
- “조기유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재미와 감동 사이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.” -〈퍼블리셔스 위클리〉

‘낙하산 키즈’는 부모 없이 홀로 떨어져 조기 유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. 작가인 벤티 C. 탕 역시 열 살 때 부모님과 떨어져 미국에서 살게 된 조기 유학생이었다.

‘전미도서상’ 후보에 오르고 ‘아시아/태평양계 미국인 문학상’을 수상한 ‘낙하산 키즈’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조기 유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래픽노블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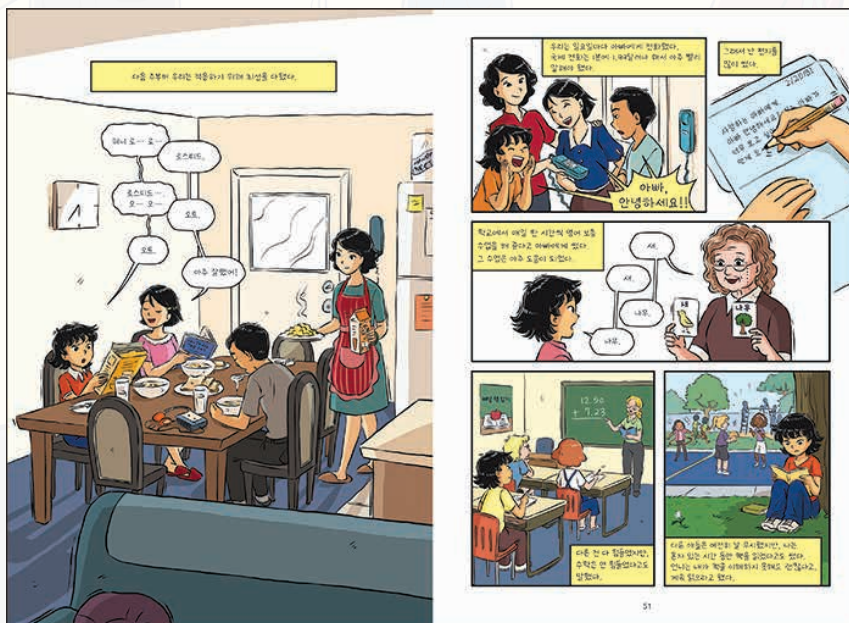
인종적 편견, 가족 사이의 신뢰,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여러 주제를 하나의 이야기에 복잡하지 않게 잘 녹여낸 그래픽 노블 『낙하산 키즈』를 통해 어린 독자들은 낯선 환경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, 나와 다른 이방인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다가갈 줄 아는 힘과 가족을 보듬는 포용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
읽기 전 활동

1. ‘낙하산 키즈’는 무슨 뜻일까요? 단어만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.
2. 뒷표지에 그려진 세 인물은 어떤 관계일까요? 어떤 상황일지 상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.
3.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.

읽기 중 활동

1.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?
2. 수많은 가게의 물건 중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가 왜 나쁜 일인지 이야기해 보세요.
3.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?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눈치 채고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.
4. 누군가 인종이나 외모 등 변하지 않는 것으로 놀림 받는 것을 보았을 때,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.



읽은 후 활동

1. 엄마 아빠,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호자와 떨어져 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? 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고, 무엇을 할 수 없게 될까요?
2. 조기 유학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가고 싶은지 각자 이유를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. (토론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아요.)
3.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에서 학교에 다니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떤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세요.
4.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 차이를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.

